전남도, 지역 정보취약계층 소비쿠폰 신청 돕는다

**28일부터 8789개 마을·시설 방문
고령층 등 대상…사각지대 최소화
집중 소비기간 운영…캠페인 전개
부단체장 중심 TF 구성 밀착 지원**

전라남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에 나선다.

전남도는 오는 21일부터 신청 가능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22개 시군과 함께 '찾아가는 민생쿠폰 신청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직접 도내 8789개 마을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신청을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오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중 소비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쿠폰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현장 중심의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TF' 구성을 통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수단 확보 △읍·면·동 민원대응 보조인력 확보 및 콜센터 운영 △사용처 홍보·안내 등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 지급을 통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8만원에서 45만원이 지급되고, 2차로 상위 소득 10%를 제외한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1차 지원금액은 전 도민에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 지역(5개 시, 무안군) 주민에게는 3만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16개 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서은수 전라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이번 민생쿠폰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는 절대 접속하지 않는 등 스미싱(Smishing)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전남 농식품, 베트남서 130만 달러 수출협약 '성과'

동남아사무소 지역특화상품 설명회

전라남도 동남아사무소가 베트남 호치민 뉴월드사이공호텔에서 지난 10일까지 열린 '2025 K-Food 지역특화상품 수출 설명회'에 참여해 총 130만 달러 규모 수출협약(MOU)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호치민지사가 주최하고, 전남도를 비롯해 호치민에 대표사무소를 둔 전국 9개 시·도 대표사무소가 참여했다.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 30여 개사와 베트남 바이어 50여 명이 참석해 1대1 수출상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나주 가보팜스, 고흥 두원농협 등 식음료 업체와 함께 현장에서 수출상담을 펼쳐 샤인머스캣, 배 등 과일류를 비롯해 유아음료, 건강식품, 한과 등 다양한 제품으로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과일류 1건 50만 달러 △과일칩 등 스낵류 2건 30만 달러 △가보팜스 식음료 1건 10만 달러 등 총 4건 130만 달러 규모 수출협약도 진행됐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전남 농수산식품의 우수성을 현지에 알리고, 실질적 수출성과로 연결시켰다"며 "앞으로도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한 다양한 판로 개척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7월분 재산세 1842억원 부과

전라남도가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90만건, 총 1842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보다 47억원(2.6%) 증가한 것으로, 개별주택가격 상승(1.83%)과 택지 개발을 통한 신축 주택과 건축물 증가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2개 시군 가운데 7월 재산세 부과액이 많은 지역은 409억원을 기록한 여수로, 이어 순천 250억원, 광양 247억원, 목포 18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과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신안으로 14억원에 그쳤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건축물·선박·항공기분, 9월에는 토지·주택(1/2)분이 부과된다. 단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 한 번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 또는 ARS(142211)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성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에 맞춰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청년창업농 브랜드·디자인 포장재 지원

**이력·상품성 평가 통해 8개소 선정
안정적 자립 기반 마련 도움 기대**

전라남도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창업농 공동브랜드 디자인 포장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지방소멸과 초고령화된 농촌 인력난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을 꿈꾸는 청년 농업인의 초기 경영난 극복과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기획됐다.

전남도는 전남에 거주하는 45세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창업이력, 상품성 등을 평가해 8개소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제품을 개발했으나 브랜드가 없어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거나, 무지상자에 상품을 출시해 홍보 효과를 누리지 못했던 청년농업인의 공동브랜드 및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전남도는 지속적인 유망한 청년 창업농 발굴을 통해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포장재 제작비 지원에 앞장설 예정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신안 김연옥 깡깡섬 대표는 "올해 첫 애플망고를 출하하게 됐는데, 맞춤형 포장재가 없어 걱정하던 와중 이번 사업을 통해 생애 첫 상품을 출시하게 돼 기대가 크다"는 소회를 밝혔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청년창업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제품이 더욱 돋보이도록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지역 청년 브랜드의 기회를 높이고, 시장경쟁력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쉬소' 개소식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6일 광산구 월계동 365이동노동자 쉼터 '쉬소' 개소식에서 박필순 시의원 등과 함께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단가 5% 인상

**0~2세 아동 2만~2만7000원
장애아동 2만9000원 인상**

광주광역시는 지난 10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5% 인상,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어린이집에서 정부 지원 보육료와 아동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는 보육료의 한도액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해 고시한다.

이번 인상은 상반기 단가 동결, 아동수 감소, 물가 상승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 운영 안정화와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결정됐다. 인상액은 0~2세 아동은 2만~2만7000원, 장애아동은 2만9000원 수준이다. 인상된 수납한도액은 7월부터 적용되며, 변경된 수납한도액의 세부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는 새롭게 구성된 첫 회의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2025년 하반기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변경안' 심의 등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보육전문가, 공익대표, 보호자 대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관계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달 1일부터 2년간 활동하며 보육정책 방향 제시·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광주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정부지원 단가에 맞춰 수납한도액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보육현장의 안정화는 물론, 영유아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광주 중외공원에 야외 물놀이장 첫 개장

**시립미술관, 19일~8월17일 운영
풀장·시소·해바라기샤워 등 갖춰**

광주광역시립미술관은 북구 중외공원 내 새롭게 꾸며진 생태예술놀이정원에 물놀이장을 조성, 오는 19일 최초로 개장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생태예술놀이정원은 광주시가 지난해 9월 조성을 완료한 아시아예술정원 조성사업의 하나로 구성됐다. 평상시에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놀이공간으로 이용되며, 여름철에는 물놀이장으로 변신해 계절별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물놀이장은 고무탄성 재질의 풀장(358㎡)과 도롱뇽조합놀이대, 물놀이시소, 해바라기샤워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다. 물놀이장 수심이 20cm로 얕고 안전해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물놀이장은 오는 19일을 첫 개장해 8월 17일까지 한달간 운영한다.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단,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휴장한다.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며, 이용료는 무료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이수한 4명의 안전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매일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해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공간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윤익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아이들이 예술과 자연 속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처음 개장한 생태예술놀이정원 물놀이장이 가족단위 시민들의 여름철 대표 물놀이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